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2 주차 (18:1~27)

(2015년 11월 8일 - 2015년 11월 14일)

(제3권 42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1 월 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주입)

오늘의 본문 (요 18:1~9)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Ἰησοῦς)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로 가셨습니다
(ἐξῆλθεν σὺ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πέραν τοῦ χειμάρρου τοῦ Κεδρῶν)
거기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κήπος)
그와 그의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εἰς ὃν εἰσῆλθεν αὐτὸ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2절)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습니다 ("Ἰδὲ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τὸν τόπον.)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서 자주 모였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άκις συνήχθη Ἰησοῦς ἐκεῖ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3절) 그러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지닌 채 그곳으로 왔습니다 (ὁ οὖν Ἰούδας λαβὼν τὴν σπεῖραν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ιερέων καὶ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ὑπηρέτας ἔρχεται ἐκεῖ μετὰ φανῶν καὶ λαμπάδων καὶ ὄπλων.)
- (4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신 예수님이 (Ἰησοῦς οὖν εἰδὼς πάντα τὰ ἐρχόμενα ἐπ' αὐτὸν)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ἐξῆλθ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당신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τίνα ζητεῖτε;)
- (5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나사렛 예수이다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가] 나다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그를 배반하는 유다 역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εἰστήκει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μετ' αὐτῶν.)

- (6절) 그가 그들에게 ‘[그가] 나다’라고 말하자 (ὡς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ἐγώ εἰμι.)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ἀπῆλθον εἰς τὰ ὀπίσω καὶ ἔπεσαν χαμαί.)
- (7절) 그러자 그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πόλιν οὖν ἐπηρώτησεν αὐτούς· τίνα ζητεῖτε.)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이다’ (οἱ δὲ εἶπαν·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 (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그]이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ὅτι ἐγώ εἰμι· εἰ οὖν ἐμὲ ζητεῖτε.)
 이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라 (ἄφετε τούτους ὑπάγειν·)
- (9절) 이는 그가 했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ὃν εἶπεν)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까
 (ὅτι οὓς δέδωκάς μοι οὐκ ἀπώλεσα ἕξ ἀπῶν οὐδ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9절을 읽으십시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만 잡아 가고 제자들은 가게 놓아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동안 예수님이 해 오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행복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엄청난 환란 가운데 죽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들이 그러한 환란 가운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제자들을 그런 환란으로부터 구출해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환란을 피해 그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잡히지 않게 하여 자신이 죽으신 뒤에도 계속 이 세상에 남겨 두신 걸까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성취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신변 안전을 부탁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39-40).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요 17:12).

위 말씀을 잘 읽어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단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정확히는 열한 제자)에만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제자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지금 시점에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신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목숨을 연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여기에 남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며,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이 명령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온 땅과 온 세대에 계속 전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대가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 잡혀가면서도 그토록 제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전파는 어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이런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기독교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만 하고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¹³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¹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¹⁵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3-15).

“¹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²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³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⁵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1-5).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늘 빛진 자로서 빛을 갠다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은 알아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전해 준 자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그 복음, 복된 소식을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그가 이 세상에서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후 얼마 안 가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대로 살아내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베드로가 칼로 말코스의 귀를 자르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18:10~14)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원문해석하기

- (10절)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뽑았습니다
(Σίμων οὖν Πέτρος ἔχων μάχαιραν εἴλκυσεν αὐτήν)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때렸습니다 (καὶ ἔπαισεν τὸν τοῦ ἀρχιερέως δούλον)
그리고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καὶ ἀπέκομεν αὐτοῦ τὸ ὠτάριον τὸ δεξιόν·)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습니다 (ἦν δὲ ὄνομα τῷ δούλῳ Μάλχος·)
- (11절)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τῷ Πέτρῳ·)
칼을 칼집에 넣어라 (βάλε τὴν μάχαιραν εἰς τὴν θήκην·)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
(τὸ ποτήριον ὃ δέδωκέν μοι ὁ πατήρ σὺ μὴ πίο αὐτό·)
- (12절) 그러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종들이
(Ἡ οὖν σπεῖρα καὶ ὁ χλῖαρχος καὶ οἱ ὑπηρέται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를 붙잡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συνέλαβο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ἔδησαν αὐτὸν)
- (13절)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를 안나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καὶ ἦγαγον πρὸς Ἄνναν πρῶτον·)
왜냐하면 그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ἦν γὰρ πενθερὸς τοῦ Καϊάφα·)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ὃς ἦν ἀρχιερεὺς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ἦν δὲ Καϊάφας ὁ συμβουλευσας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ὅτι συμφέρει ἓνα ἄνθρωπον ἀποθανεῖν ὑπὲρ τοῦ λαοῦ·)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사건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은 이 두 사람의 일을 서로 교차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몇 차

례에 걸쳐 왜 요한이 이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0절~12절: 베드로가 칼로 말코스의 귀를 베다
- 13절~14절: 예수님이 체포되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다
- 15절~18절: 베드로가 따라가 안나스의 집에서 불을 쬐다
- 19절~24절: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심문을 당하다
- 25절~27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심문을 당하다

먼저 10-12절을 읽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때리고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귀가 잘렸던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외에 나머지 모든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귀를 자른 제자가 누구인지,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 마 26:51, 막 14:47, 눅 22:50).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그 제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왜 요한복음만 이름을 명시하였는가?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한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은 아닌 듯 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인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셔서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지배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무장한 천여 명의 군대와 종들을 향해 베드로는 두려움없이 호기있게 칼을 휘두른 것이지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생각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한 사람(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베드로로 기록하고 있음)이 칼로 종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⁵¹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 뜨리니 ⁵²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⁵³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⁵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마 26:51-54).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리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간의 혀를 꼬부러지게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방언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미래를 보여 줄 수도 있고, 말기 암환자를 고칠 수도 있으며, 정신병자를 온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그 전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누누히 말했듯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간절히 원하거나 또는 그리 될 거라 믿고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목적이나 뜻에 무관한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번 뜻을 세우시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삶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이 초월적 능력을 행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죽어야 할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간과한 것이지요.

두 번째,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코스는 누구일까요? 왜 그의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코스는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코스의 이름에 의미를 두어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는 감히 왕의 귀를 자른 셈입니다. 신학자 R.T. France는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열심당원 같은 생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 세상 왕을 처단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부유한 삶, 건강한 삶, 명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평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해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생각이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서 잘못된 신념의 전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간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믿음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18:10~14)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원문해석하기

- (10절)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뽑았습니다 (Σίμων οὖν Πέτρος ἔχων μάχαιραν εἴλκυσεν αὐτήν)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때렸습니다 (καὶ ἔπαισεν τὸν τοῦ ἀρχιερέως δούλον)
그리고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καὶ ἀπέκομεν αὐτοῦ τὸ ὠτίριον τὸ δεξιόν·)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습니다 (ἦν δὲ ὄνομα τῷ δούλῳ Μάλκος·)
- (11절)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τῷ Πέτρῳ·)
칼을 칼집에 넣어라 (βάλε τὴν μάχαιραν εἰς τὴν θήκην·)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
(τὸ ποτήριον ὃ δέδωκέν μοι ὁ πατήρ σὺ μὴ πίο αὐτό·)
- (12절) 그러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종들이
(Ἡ οὖν σπεῖρα καὶ ὁ χλῖαρχος καὶ οἱ ὑπηρέται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를 붙잡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συνέλαβο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ἔδησαν αὐτὸν)
- (13절)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를 안나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καὶ ἦγαγον πρὸς Ἄνναν πρῶτον·)
왜냐하면 그는 가야바파스의 장인이었습니다 (ἦν γὰρ πενθερὸς τοῦ Καϊάφα·)
가야바파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ὃς ἦν ἀρχιερεὺς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 (14절) 가야바파스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ἦν δὲ Καϊάφας ὁ συμβουλευσας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ὅτι συμφέρει ἓνα ἄνθρωπον ἀποθανεῖν ὑπὲρ τοῦ λαοῦ·)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12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말코스의 귀를 자르는 것을 나무라시며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종들이 예수를

붙잡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순순히 체포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순순히 결박에 응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결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명 체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규모의 로마 군대와 천부장까지 동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 한 명을 체포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를 잡도록 협력한 가롯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몇 명의 제자들뿐이며, 특히 겐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하다시피 많은 군대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가 없는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일당백, 일당천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존재였기에 나름대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분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자 놀라서 뒤로 넘어지기까지 한 것이지요 (요18:6).

다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로마 당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교 종교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세상으로 대표된 로마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유대인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합작이라는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대표하는 제국이었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주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을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박은 것입니다. 어찌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한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13-1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성경은 안나스가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이아파스의 장인이고 가이아파스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공관복음은 안나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직접 가이아파스에게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가이아파스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A.D. 7~14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이아파스는 AD.27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는 동안 안나스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격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자 결의를 했다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당시 대제사장인 가이아파스에게로 보내는 수순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열두 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성전에 남아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바로 안나스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안나스란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 (안나)인데 ‘한나(안나)’가 여성형이라면 ‘안나스’는 남성형에 해당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또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사실 ‘은혜’란 우리가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셈이지요.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안나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지니는 이중적이고도 역설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안나스를 예수를 죽인 악독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무관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어찌하면 당신은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당시 대제사장이며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고 했던 가이아파스 (Καϊάφας)는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으로 추정되는 AD. 27년에 대제사장이 되어 36년까지 10여년을 대제사장으로 재직합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우울함, 침울함’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빛으로 오셔서 활동하던 당시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가이아파스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며, 초기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사도행전은 가야바(가이아파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⁵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⁶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⁷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행 4:5-7).

가이아파스는 역사적으로 참으로 침울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하여 제사를 드린 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²²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²³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²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²⁵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²⁶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2-26).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실상 죽여 제물 삼은 사람이 당대의 대제사장인 가이아파스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이아파스의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두개파를 대표했습니다. 그들 가문은 A.D.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훼파될 때까지 대제사장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가이아파스의 말처럼 한 사람이 죽어 백성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 백성은 바로 믿는 우리들인 셈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8:15~18)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16.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 그 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원문해석하기

- (15절)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Ἠκολούθει δὲ τῷ Ἰησοῦ Σίμων Πέτρος καὶ ἄλλος μαθητής.)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ὁ δὲ μαθητής ἐκεῖνος ἦν γνωστός τῷ ἀρχιερεῖ)
그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καὶ συνεισῆλθεν τῷ Ἰησοῦ εἰς τὴν αὐλὴν τοῦ ἀρχιερέως.)
- (16절)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었습니다 (ὁ δὲ Πέτρος εἰστήκει πρὸς τῆς θύρας ἔξω.)
그러자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ἐξῆλθεν οὖν ὁ μαθητής ὁ ἄλλος ὁ γνωστός τοῦ ἀρχιερέως)
그리고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τῇ θυρωρῷ καὶ εἰσήγαγεν τὸν Πέτρον.)
- (17절)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τῷ Πέτρῳ ἡ παιδίσκη ἡ θυρωρός·)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요?” (μὴ καὶ σὺ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εἶ τοῦ ἀνθρώπου τούτου·)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λέγει ἐκεῖνος· οὐκ εἰμί.)
- (18절) 종들과 관리들이 숯불을 피우고 [둘러] 섰습니다
(εἰστήκεισαν δὲ οἱ δούλοι καὶ οἱ ὑπηρέται ἀνθρακῶν πεποιηκότες·)
추웠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ὅτι ψυχὸς ἦν καὶ ἐθερμαίνοντο·)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ἦν δὲ καὶ ὁ Πέτρος μετ’ αὐτῶν ἐστὼς καὶ θερμαινόμεν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16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요한은 다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 뒤를 따라 안나스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알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으나 베드로는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대제

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이야기와 베드로가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른 한 제자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 (beloved disciple)와 ‘다른 제자’가 동일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그 개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기에 대제사장의 집을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고 추정할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를 뜰 안으로 들여올 정도라면 대제사장 집과 막역한 사이이거나 대제사장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월절 전날인데다가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대단한 중죄인으로 취급받았기에 종들이 느꼈을 압박감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과 대충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까지 들여 보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열두 제자가 아닌 예루살렘에 사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제자일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인지 벌써 이름이 알려졌을 테니 말이지요(참고, D.A. Carson, 582). 실제로 요한은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까지 기록하였으니 이런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한이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베드로의 행보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다른 제자를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절을 읽으십시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여종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종의 질문에는 어떠한 적대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종이 누구를 심문할 위치에 있거나 그것을 분별해서 뒷사람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D.A. Carson, 583).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때 이 여종은 ‘다른 제자’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다른 제자)처럼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질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여종의 질문에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해도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까지도 체포하려 했다면 당시 거의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결국 베드로는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비겁해 진 것으로 볼 수밖

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번 부인한 그 일로 인해 계속해서 연달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으십시오. 종들과 관리들이 숯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도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공관복음은 베드로가 그냥 불을 쬐고 있었다거나 (막 14:54, 눅 22:55), 아예 그런 사실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굳이 그가 쬐고 있던 불이 숯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냥 불을 쬐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숯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기록을 토대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시간과 또 숯불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일부러 다른 곳에서 피우던 숯을 가져와 다시 피운 것이 아니라면 불을 피운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숯불은 이미 나무가 타사그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이미 밤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으로 미루어 볼 때 추운 밤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취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D.A. Carson, 583).

이 숯불 (ἄνθραξ (안드라크) 또는 ἄνθρακιά (안드라키아))은 신약에는 세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중 요한복음에 두 번 쓰였는데 둘 모두 베드로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18절 외에 2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위해 생선을 굽기 위해 피워 놓은 불이 숯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요 21:9).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로마교회의 교인들에게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썩아 놓으리라. (롬 12:20)” 라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 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숯불은 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어부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숯불’은 단순히 몸을 녹이거나 요리를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세월을 상기시키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위에 썩아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숯불을 쬐며 무엇을 상기하게 되었을까요?

잠시 뒤에 밝혀질 일이지만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합니다. 문 앞에서 부인 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번을 부인한 셈이지요. 그리고 닭이 울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실 그 당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는 닭을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신성한 장소에서는 화를 치며 시끄럽게 울어대는 닭을 키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장들을 아침 제사로 불러 모으기 위해 해 뜨기 전 새벽에 나팔을 불어서 제사장들을 깨웠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수탉의 울음 소리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다는 것도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닭 울음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가 울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온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숯불’로써 그 당시 베드로의 모든 심정을 더 의미있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뭔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기도 하시지요. 그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숯불’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안나스의 심문을 받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18:19~24)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냐
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Ο οὖν ἀρχιερεὺς ἠρώτησεν τὸν Ἰησοῦν)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περὶ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καὶ περὶ τῆς διδασκαλίας αὐτοῦ.)
- (20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ἐγὼ παρρησίᾳ ἐλάλησα τῷ κόσμῳ,) 내가 항상 공회와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ἐγὼ πάντοτε ἐδίδαξα ἐν συναγωγῇ καὶ ἐν τῷ ἱερῷ,) 그곳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ὅπου πάντες οἱ Ἰουδαῖοι συνέρχονται,) 그리고 나는 전혀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καὶ ἐν κρυπτῷ ἐλάλησα οὐδέν.)
- (21절) 왜 나에게 묻습니까? (τί με ἐρωτᾷς)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ἐρώτησον τοὺς ἀκηκοῦτας τί ἐλάλησα αὐτοῖς)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ἴδε οὗτοι οἶδασιν ἃ εἶπον ἐγώ.)
- (22절) 그가 이 말을 하실 때에 (ταῦτα δὲ αὐτοῦ εἰπόντος) 곁에서 있던 관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먹을 날리고 말했습니다 (εἷς παρεστηκὸς τῶν ὑπηρετῶν ἔδωκεν ῥόπσιμα τῷ Ἰησοῦ εἰπών·) 당신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οὕτως ἀποκρίνη τῷ ἀρχιερεῖ·)
- (23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악하게 말했다면 (εἰ κακῶς ἐλάλησα,) 당신이 그악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μαρτύρησον περὶ τοῦ κακοῦ·) 그러나 만약 내가 선하게 말했다면 왜 당신이 나를 치니까? (εἰ δὲ καλῶς τί με δέρεις·)
- (24절) 그러자 안나스가 결박되어 있는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ἀπέστειλεν οὖν αὐτὸν ὁ Ἄννας δεδεμένον πρὸς Κοϊάβαν τὸν ἀρχιερέ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다시 요한은 독자들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으십시오.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는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구이며, 또한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문입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을 심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을 심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대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거나(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이 겸임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두 경우가 아니라면 안나스의 이런 행동은 월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는 의문은 예수님을 체포해 놓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인데 분명한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잡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문자적인지를 예수님에 의해 폭로 당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이적을 행한 것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고 따라서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큼 중대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는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동안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온 안식의 의미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폭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통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목숨처럼 애지중지 여기던 전통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가 예수님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종교적 기반은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호위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여기며 신명기적 사고에 투철했던 사람들이지요. 즉,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명령을 거스른 사람들을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여 분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살며, 명예나 권력을 누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며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준행한 자들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님이 거지, 창녀, 세리들을 더 귀하게 여긴데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자랑이 자보물이었던 성전을 허물라고 하자 그들은 발끈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A.D. 0년에 성전이 훼파된 후 사두개파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단단히 마음을 먹은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두개파는 부활은 없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호위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왔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언급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매여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주일성수 문제로 힘들어한 적은 없었나요? 어쩌다 한번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마치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고 또 남들을 향해서도 정죄의 칼날을 드리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로 자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서든 주일 성수를 지켜내어 자신의 의를 입증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문턱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믿는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수많은 교회 건물 안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바리새인적 요소는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두개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에 동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지요. 번영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복 받은 교회라 여겨 점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 그것을 성전이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겸손은 말뿐이고 교회에서도 차별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세상보다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능하고, 현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교회 내에서 더 많이 인정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²⁶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²⁷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²⁸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²⁹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³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³¹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1:26-31).

여기서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현상을 비판하여 올바르게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기만당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제대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요6:26).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심문에 답하시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18:19~24)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냐
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Ο οὖν ἀρχιερεὺς ἠρώτησεν τὸν Ἰησοῦν)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περὶ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καὶ περὶ τῆς διδασκαλίας αὐτοῦ.)
- (20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ἐγὼ παρρησίᾳ ἐλάληκα τῷ κόσμῳ,) 내가 항상 공회와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ἐγὼ πάντοτε ἐδίδαξα ἐν συναγωγῇ καὶ ἐν τῷ ἱερῷ,) 그곳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ὅπου πάντες οἱ Ἰουδαῖοι συνέρχονται,) 그리고 나는 전혀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καὶ ἐν κρυπτῷ ἐλάλησα οὐδέν.)
- (21절) 왜 나에게 묻습니까? (τί με ἐρωτᾷς;)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ἐρώτησον τοὺς ἀκηκοῦτας τί ἐλάλησα αὐτοῖς;)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ἴδε οὗτοι οἶδασιν ἃ εἶπον ἐγώ.)
- (22절) 그가 이 말을 하실 때에 (ταῦτα δὲ αὐτοῦ εἰπόντος) 곁에서 있던 관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먹을 날리고 말했습니다 (εἷς παρεστηκὸς τῶν ὑπηρετῶν ἔδωκεν ῥόπσιμα τῷ Ἰησοῦ εἰπόν·) 당신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οὕτως ἀποκρίνη τῷ ἀρχιερεῖ·)
- (23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악하게 말했다면 (εἰ κακῶς ἐλάλησα,) 당신이 그악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μαρτύρησον περὶ τοῦ κακοῦ·) 그러나 만약 내가 선하게 말했다면 왜 당신이 나를 치니까? (εἰ δὲ καλῶς, τί με δέρεις;)
- (24절) 그러자 안나스가 결박되어 있는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ἀπέστειλεν οὖν αὐτὸν ὁ Ἄννας δεδεμένον πρὸς Κοϊάβαν τὸν ἀρχιερέ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2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공회와 성전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지 단지 몇 명의 제자들만 모아 놓고 비밀리에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고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대답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안나스일텐데 도대체 그는 어떤 대답을 듣고자 이런 질문을 던진 걸까요?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확정적인 한 마디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제자들과 공모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유대 전통에 따르면 두세 증인으로 사건의 진위가 확정이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들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증언을 들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안나스가 행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율법에 의거해서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던지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이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빌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수준으로는 인식했던 것이지요.

결국 안나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의 전통적 체제를 전복하려는 비밀 결사 조직 정도로 폄하하여 죄를 덮어 씌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 보기 좋게 그의도가 폭로되고 만 셈이지요. 안나스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자신이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고 대답하시자 안나스 곁에서 있던 관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며 “당신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라고 추정되는 안나스에게 불경죄를 범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인간 중심으로 왜곡해서 전해도 이를 알아차

리기는커녕 왜곡된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여 원래 말씀을 무력화시키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진리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안나스 곁에 서 있다가 안나스를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배제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그 원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으십시오. 주먹으로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악하게 말했다면 당신이 그 악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내가 선하게 말했다면 왜 당신이 나를 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한 진술에 대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관리(하인)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급급하여 제대로 된 절차조차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차분하게 상황에 대응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묶여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쪽은 안나스를 위시한 산헤드린 공회 그룹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허둥대며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상황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들의 방만한 행동이나 무원칙적인 대응을 보면 그들 역시나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 놓은 수순대로 꾀맞추기 위해서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채 밤을 틈타 얼렁뚱땅 이 일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악하게 말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대면 될 것을 어떠한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그저 감정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지고 계십니다. 이유없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이를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¹⁹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²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²¹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²²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²³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²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19-24).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공연히 이유없이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 중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이런 모든 환란을 지켜 보아야 했던 요한은 예수님이 애매히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 당하면 순순히 받아들이겠지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과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도 억울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유없이 당한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번영을 추구하던 그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비진리를 드러나게 하여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지요.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만나면 비진리가 진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구를 감추기 위해 진리를 죽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진리 안에 거하나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비진리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세백 담이 올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25~27)

-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 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담이 울더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Ἦν δὲ Σίμων Πέτρος ἐστὼς καὶ θερμαινόμενος.)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오?” (μὴ καὶ σὺ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εἶ;)
그가 부인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ἠρνήσατο ἐκεῖνος καὶ εἶπεν· οὐκ εἰμί.)
- (26절)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λέγει εἷς ἐκ τῶν δούλων τοῦ ἀρχιερέως, συγγενὴς ὧν οὗ ἀπέκοψεν Πέτρος τὸ ὠτίον·)
내가 동산에서 그와 함께 한 너를 보지 않았느냐? (οὐκ ἐγὼ σε εἶδον ἐν τῷ κήπῳ μετ’ αὐτοῦ·)
- (27절)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πάλιν οὖν ἠρνήσατο Πέτρος.)
그리고 즉시 담이 울었습니다 (καὶ εὐθέως ἠλέκτωρ ἐρόνησ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안나스는 더 이상 심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이아파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이아파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오히려 안나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가이아파스가 심문한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앞서 가이아파스에 의해 예수님이 어떤 심문을 받았는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이아파스가 예수님을 심문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마태복음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⁶⁹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증거를 찾으매 ⁷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언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⁷¹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⁷²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⁷³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⁷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⁷⁵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

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⁶⁶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 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⁶⁷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⁶⁸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마 26:59-68).

가이아파스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안나스를 포함한 것으로 보임)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만 가지고는 사형죄를 내릴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증거자를 찾았지만 그 중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을 찾아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 문제 삼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성전인 자신의 육신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풀어 말하자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한 것이라고 증거한 것이지요.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그들의 추궁에 간접적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한 구석에서 대제사장의 종들, 관리들과 모려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 볼때 예수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같은 뜰 안에서 안나스에게 심문을 받다가 다시 가이아파스에게 끌려가 심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일단 걸음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게 불을 쬐면서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25-27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는 곁에서 있던 종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 않냐고 연거푸 두 번이나 지목을 당하자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마치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닭이 울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자마자 곧 이어 닭이 울니다. 요한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공관복음은 이 에피소드를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과 그 후 반응에 대해 공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⁷³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⁷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⁷⁵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 26:73-75).

“⁶⁹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⁷⁰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⁷¹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⁷² 닭이 곧 두 번째 울

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막 14:69-72).

“⁵⁹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⁶⁰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⁶¹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⁶²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 22:59-62).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다고 기록하고 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은 베드로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신음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안겨 줍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제는 한마디로 ‘비겁함’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지요. 물론 이 당시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3년을 함께한 스승인 예수님이 무력하게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매를 맞고 있고, 수난을 당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단순히 스승과 제자라는 의리 때문에, 혹은 3년을 함께 한 인간적인 정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쉽사리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 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희롱당하고 수모당하는 스승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모른다고 했던 지난 날의 비겁함이 역설적으로 훗날 그의 담대함의 원동력이 되었을 테니까요.

또한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초대 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여 하나님 품 안에 일찍 안기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면 죽음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남겨질 가족이 눈에 밟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잠시 거짓을 통해 환란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모두를 배교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두려움에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돌아온 그들에게 베드로의 이 사건은 매우 큰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죄책감으로 평생을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마침내는 용기를 얻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서방 자유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심한 핍박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자 진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모두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든 말든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비난을 해도 그저 잠잠히 있지요.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부인입니다. 평소에는 어느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두 번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 되어 그의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한 순간의 비겁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인 게지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언제 닭이 울었나요? 당신은 그 닭 울음 소리에 통곡한 적이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